

2.2.1. 만화출판업 매출 현황

2009년 만화출판업 매출액은 3,166억 원으로 전년대비 5.1% 증가했으나, 연평균은 1.3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만화출판업 매출액 구성을 보면 ‘만화출판사(만화잡지, 일일만화, 코믹스 등)’는 923억 원(29.2%)이며, ‘일반출판사(만화부문)’는 2,242억 원(70.8%)으로 조사되었다. ‘만화출판사(만화잡지, 일일만화, 코믹스 등)’는 전년대비 3.3%, 연평균 6.9% 감소한 반면 ‘일반출판사(만화부문)’는 전년대비 9.0%, 연평균 1.4% 증가하였다. 만화출판업의 감소는 ‘만화출판사(만화잡지, 일일만화, 코믹스 등)’의 매출액 감소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사료된다. 특히 만화출판사의 매출감소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는 만화 향유계층이 웹툰 등 인터넷만화로 옮겨가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매출의 감소는 만화제작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.

표 4.2.6 만화출판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소분류	매출액(백만원)			비중 (%)	전년대비 증감률(%)	연평균 증감률(%)
	2007년	2008년	2009년			
만화 출판사 (만화잡지, 일일만화, 코믹스 등)	106,599	95,559	92,361	29.2	▽3.3	▽6.9
일반 출판사(만화부문)	218,116	205,706	224,281	70.8	9.0	1.4
소계	324,715	301,265	316,642	100.0	5.1	▽1.3

그림 4.2.2 만화출판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

(단위 : %)

